

손흥민·황희찬·이승우 '삼각편대' 활용법은?

(공격)

베스트 11 윤곽 드러날지 관심집중
장현수 복귀후 4-4-2·스리백 실험
김신욱의 원톱·투톱 가능성도 점검
개개인 체력 관리 해법 찾는 기회로

신태용(48)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7일 오후 9시10분(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티볼리 슈타디온에서 볼리비아와 평가전을 갖는다. 4일부터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강화훈련에 나선 대표팀이 2018러시아월드컵 도전에 앞서 치를 마지막 공개 실전무대다. 11일 오후 10시 열리는 세네갈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1위의 한국보다 볼리비아(57위)의 순위가 조금 높지만 역대전적에서는 1무(1994미국월드컵)를 기록 중이다. 대표팀은 컨디션 유지를 위해 하루 전 인스부르크로 이동해 시내 호텔에서 1박을 한 뒤 경전에 임한다.

●베스트 라인업 출몰동?

신 감독은 레오강 훈련캠프를 열며 "월드컵에서 활용할 베스트 라인업은 거의 정해졌다. 부상자만 없다면 지금의 구성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선발 출격할 자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전력 누수는 없다. 오스트리아 훈련부터 월드컵 최종엔트리(23명) 전원이 손발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수비의 핵' 장현수(27·FC도쿄)의 복귀가 반갑다.

대표팀은 전주에서 열린 1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평가전에서 '캡틴' 기성용(29·스완지시티)을 스리백(3-4-1-2) 수비진 가운데에 포진시키는 깜짝 전술을 공개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기성용이 라인을 내려서자 공격은 풀리지 않고, 수비도 흔들렸다. 그러나 장현수의 합류로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포백과 스리백을 두루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손흥민(26·토트넘)~황희찬(22·잘츠부르크)~이승우(20·베로나) 등 공격 삼각편대의 활용과 함께 상대적으로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김신욱(30·전북 현대)의 원 톱과 투 톱 가능성도 점검 대상이다.

●노출 최소화, 제2·제3의 전력육성 확인

대표팀의 의지는 분명하다. 스웨덴~멕시코~독일 등 월드컵 조별리그 상대국 이목이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 숨길 부분은



김신욱(가운데) 등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이 6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레오강 슈타인베르크 슈타디온에서 열린 체력 훈련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 러시아월드컵을 앞둔 대표팀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 훈련으로 빠르게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레오강(오스트리아) | 뉴시스

최대한 숨기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세트피스가 그렇다.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 훈련 때부터 다양한 세트피스 전략을 준비 중이지만 100% 노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신 감독은 "가릴 것은 가려야 한다"고 했다. 볼리비아를 상대로 제2, 제3의 전술옵션을 활용할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정확한 몸 상태를 가능하는 테스트 무대로 삼을 수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시차(6시간)를 감안해 레오강(시차 7시간)에 캠프를 차렸다. 지금이 선수들이 가장 힘겨워 하는 시점이다. 더욱이 4일 가벼운 회복훈련으로 손발을 맞추기 시작한 대표팀은 5일 오전훈련을 90분 실전의 약

90% 강도의 체력 프로그램으로 할애했다. 볼리비아전은 승패보다도 각자 체력을 확인하고, 컨디션 관리 해법을 찾아내는 소중한 기회다. 월드컵 조별리그도 경기별 간격이 타이트해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레오강(오스트리아)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동료에게 큰 힘이 된 이청용의 응원메시지

이재성(26·전북 현대)이 6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레오강 슈타인베르크 슈타디온에서 열린 훈련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섰다. 체력훈련에 대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던 이 자리가 잠시 조용해진 순간이었다. 포지션과 역할이 비슷하고 항상 든든하게 결을 지켜준 이청용(30·크리스털 팰리스)을 언급할 때였다.

이재성이 털어놓은 뒷얘기는 이렇다. 태극전사들은 한국에서 소집훈련을 할 때부터 선수단끼리 단체 모바일 메신저를 쓰고 있는데,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한 이청용이 명단 통보를 받고 단체장에서 빠져나가면서 동료들에게 진심어린 응원과 격려를 보내줬다는 것이다. 이재성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청용이 형과 꼭 월드컵에 가고 싶었다. 함께 뛰고 싶었다.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됐다"고 아쉬움과 고마움을 동시에 내비쳤다.

레오강(오스트리아) | 남정현 기자

관심 받지 못한 한국, 강호들 콧대 꺾어줘!

구텐 모르겐!

한국축구는 아시아에서 강호로 통하지만 월드컵은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최약체로 꼽히고, 아무리 후한 평가를 받더라도 '다크호스' 그 이상의 대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018러시아월드컵에 도전할 태극전사들은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마지막 강화훈련에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정비한 뒤 12일(한국시간) 월드컵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납니다.

대표팀은 오스트리아에 캠프를 차린 여러 국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최국 러시아가 이 곳을 이미 방문했고, 나이지리아~페루~세르비아~일본~호주 등이 훈련을 마쳤거나 진행 중입니다. 또 독일~브라질~칠레 등이 친선경기를 위해 오스트리아에 발 도장을 찍습니다.

세계적인 강호들의 텃바구니에 끼어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아무래도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곳 오스트리아 매체들도 심드렁합니다. 자국 대표팀을 열

심히 조망할 뿐이죠. 특히 3일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격파해 분위기를 탄 오스트리아가 10일 비엔나에서 또 다른 세계 최강 브라질과 A매치를 치른다는 소식이 잔뜩 들떠 있습니다.

물론 제3자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선 조별리그 F조에서 경쟁할 국가들조차 딱히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레오강 슈타인베르크 슈타디온에서 훈련하는 태극전사들을 체크하겠다는 상대국 언론사들도 많지 않습니다. 멕시코를 제외한 스웨덴, 독일의 몇몇 매체들이 대한축구협회에 취재 문의를 했으나 우리 대표팀의 비공개 훈련과 인터뷰 섭외의 어려움으로 방문을 보류했다는 후문입니다.

7일 인스부르크 티볼리 슈타디온에서 열린 한국-볼리비아 평가전에 대한 관심도 높지는 않습니다. 경기 당일 스웨덴 매체 한 곳만 찾는다고 하네요. 그래도 우리로서는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민감한 시점에서 떠들썩한 조망보다는 관심 밖에 있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대표팀은 러시아에서 '통쾌한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허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훈련도 휴식도 '신'나게...

올뿐인 자신감이 아닌, 묵묵히 준비된 실력으로 그간 우리를 외면한 강호들의 높은 콧

대를 제대로 꺾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레오강(오스트리아) | 남정현 기자